

Healing VI.

위기의 상황에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교회

1. 위기

모든 사람에게 '위기'의 시점이 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 긴박하다는 것이다. 급하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위기는 개인으로, 공동체로, 나라 단위로도 올 수 있다. 위기를 잘 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위기는 '경고'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위기는 '징조'이다. 위험 수위에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이라는 싸인이다.

2. 위기의 상황에 무감각한 시대

문제는 '위기'에 대한 감이 무뎠다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를 알려도 무감각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대처를 하지 않는다. 위기는 긍정적 싸인이다. 골든타임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위기를 알았다면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무감각하다.

'타이타닉'호가 그 예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웠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줄 아무도 몰랐다. 타이타닉호는 수면위에 튀어나온 빙산과 충돌 후 침몰하기 시작했다. 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서서히 침몰했다. 사람들은 침몰하는 순간에도 파티하고 있었다.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었기 때문이다. 오늘 현대사회는 과거의 어떤 때보다 '위기 지수'가 높다 (환경, 경제, 정치, 가정, 교육 등). 그런데 문제는 위기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상황'을 알리신다.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크고 두려운 날'이 선포된다. 무슨 싸인인가? 준비하라는 것이다. 위기의 날이 선포된다.

[요엘 2:1-2]

1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2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 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3. 위기의 상황을 대처 - '지금이라도'

[요엘 2:12-13]

12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마음에 호소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위기의 상황에 반응하는 교회 - 아가보

[사도행전 11:27-30]

27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에 있었다. 아가보를 통해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그 기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경제기근은 도미노와 같다. 주변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반드시 대처해야한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기근'에 대한 위기를 알리셨고, 안디옥교회는 위기상황에 반응했다.

5. 위기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교회

오늘날 교회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다. 고통은 실제적인 문제이다. 기근은 실제적인 문제이다.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면 고통이 온다. 고통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보았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고통'을 해석하지 못한다.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반응이 없다. '나'만 피해 없으면 된다.

엄청난 '이기심'이 교회 안에 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아도 그대로 지나친다. (지나쳐 버린 제사장, 레위인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라.) 자신은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권리, 영역에 엄청나게 민감하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사회속에서 일어난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가 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위기에 처해 본 사람은 그 때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침몰하고 있던 타이타닉의 승객들을 돕기 위해, 마지막에 움직였던 작은 구조배들의 손길이 얼마나 귀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된 한국을 돕기 위한 각 나라의 손길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6.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라.

[말라기 4:5-6]

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은 말라기 말씀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말라기 4:5-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시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5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크고 두려운 날을 해결 할, 엘리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 엘리야는 누구인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1)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며, 가뭄으로 말라버린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2) 다음세대 엘리사를 준비시킨 사람.

하나님은 기근과 가뭄으로 죽어가는 땅에서 엘리야를 준비 시키셨다. 엘리야가 일어나 그 땅에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엘리야의 심령이 우리안에 부여져야 한다. 이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들어가 실제적인 '하늘의 통로'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교회를 향해 가장 핍박이 강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위대한 사람과 공동체를 준비시키신다.

크고 두려운 날이 코 앞에 이른 이 때에 엘리야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고통은 영혼육을 피폐하게 한다. 이제 실제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낼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안디옥 교회처럼 반응하자.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자. 내가 나가는 현장마다 천국복음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자.